

## 유아의 순응 및 불순응 행동 :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성, 연령, 및 사회적 상황과의 관계\*

Preschoolers'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 As a Function of  
Maternal Behavior, Child Gender and Age and Social Context\*

용의선(Eui-Seon Yong)<sup>1)</sup>

박성연(Seong-Yeon Park)<sup>2)</sup>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preschoolers'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as it related to maternal behavior, child gender and age, and social context. The subjects were 213 preschool children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reported by mothers and teachers.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and a series of repeated measures ANOVA revealed that mothers' coercive parenting was associated with lower committed compliance and ignorant noncompliance. It was also found that the 5-year-olds studies showed higher committed compliance in moral situations whereas the 6-year-olds showed higher situational compliance in conventional situations. Noncompliance was more common among the 5-year-olds than the 6-year-olds. It was also found that girls exhibited higher compliance than boys in both moral and conventional contexts.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Key Words** : 순응행동(compliance), 불순응 행동(noncompliance), 사회적 상황(social context), 양육행동(parenting).

---

\* 본 논문은 2009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sup>1)</sup>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 석사

<sup>2)</sup>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eong-Yeon Park,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psy@ewha.ac.kr

## I. 서 론

유아기의 주요 발달과제는 사회적, 상황적 요구에 맞추어 자기통제력을 기르고 효과적인 사회적관계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들은 걸음마기 시기부터 해서는 안되는 일과 해야만 하는 행동에 관한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요구한다. 아동의 순응행동( compliance)은 자기통제(self-control)의 초기형태로서(Kaler & Kopp, 1990) 아동은 걸음마기가 시작되는 12-18개월경부터 양육자의 바람이나 기대를 인식하고 간단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인 순응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걸음마기의 초기 순응행동은 대부분 양육자의 요구나 지시 즉, 외적통제에 따르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유아기부터는 점차 자기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게 되는 내적통제로 발달하게 된다(Feldman & Klein, 2003). 그러므로 또래 집단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유아기의 경우, 사회적 상황에서 보이는 순응행동은 긍정적인 사회적 능력이나 도덕발달을 예측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반면 불순응 행동(noncompliance)은 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내는 유아의 순응행동은 이후 발달을 위한 중요한 발달과제로 인식되고 있다(Chen et al, 2003).

유아가 나타내는 순응행동이나 불순응 행동은 그 발생 빈도나 정도에서 개인차가 있으며 그 유형에서도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순응 및 불순응 행동에서의 개인차는 대체로 연령이나 성 등 아동의 특성이나 부모의 양육행동, 또는 아동이 처한 사회적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 우선 양육행동측면에서 볼 때 자녀에게 온화하며 민감한 양육태도를 보이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 부모

의 자녀는 순응하는 경향이 높다(박호선 · 한유미, 2001; 신영아, 2007; 하지영 · 박성연, 2005; Kochanska, 2002). 유사한 맥락에서 어머니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이 조화로우며 아동은 순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난실, 2004; 성희용, 2004; 홍미림, 2005) 반면, 부모가 강압적, 처벌적이거나 허용적일 경우 부모에게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순응하는 경향이 높다(김현미, 2006; 신영아, 2007; 하지영 · 박성연, 2005; 한태숙 · 황혜정, 2010 ).

한편 양육행동과 관련지은 위의 국내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전반적인 순응 또는 불순응 정도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Kochanska 등(Kochanska, 2002; Kochanska & Aksan, 1995)은 순응, 불순응 행동은 유형화 될 수 있고 각 유형은 그와 관련된 예측변인이나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즉 순응행동은 그 동기에 따라 자발적 순응(committed compliance)과 상황적 순응(situational compliance)으로 구분된다. ‘자발적 순응’은 외적인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양육자의 명령이나 요구에 대해 스스로 순응하는 형태로 성숙하고 내면화된 순응행동을 뜻하며, ‘상황적 순응’은 외적인 통제가 있는 상황에서만 순응하는 것이다. 반면, 불순응 행동은 ‘무시’ ‘거부’ ‘협상’ ‘반항’ 등 수동적인 불순응 행동에서 적극적인 불순응 행동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Kochanska & Aksan, 1995). ‘무시’는 단순히 성인의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수동적 형태의 불순응 행동을 뜻하며, ‘거부’는 성인의 요구나 조정행동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행동이다. 또한 ‘협상’은 성인의 요구나 지시에 타협안을 제시하거나 설득하려는 간접적인 형태의 불순응 행동을 뜻하며 ‘반항’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형태로(화, 짜증, 울음 공격성) 반대의사를 의도

적,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행동이다. 이들에 의하면 온화하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며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 부모의 자녀는 자발적인 순응을 하는 경향이 높고(Kochanska, Aksan, & Forman, 2004; Kochanska, Aksan, & Koenig, 1995), 위협이나 체벌, 부정적인 언어사용 등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통제를 하는 경우는 자발적 순응을 못하고 반항하는 경향이 높다(Chen et al., 2003; Houser, Schuetze, & Eiden 2003; Kochanska & Aksan, 1995).

유아가 처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도덕적, 관습적, 개인적 상황) 또한 순응 또는 불순응 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Turiel (1983)에 의하면 유아의 사회적인 개념은 도덕적, 관습적, 개인적 영역으로 조직화된다. 따라서 유아의 사회적 행동은 시대와 사회를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근원적인 가치규범이 중요시되는 도덕적 상황(Nucci, 2001), 조화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구성원들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관습적 상황, 그리고 자신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적 상황(Yau & Smetana, 2003)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아는 성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성인의 권위를 무조건 수용하는 대신, 순응이 요구되는 그 상황이 도덕적, 관습적인지 또는 개인적 상황과 관련된 요구나 기대인지에 따라 성인의 권위를 따를 것인지를 결정한다(Laupa & Turiel, 1986; Tisak, 1986). 그러므로 유아의 순응 및 불순응 행동이나 유형 역시 각각의 상황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유아는 개인적 위반상황보다 도덕적 위반 상황에서는 부모의 권위개입(즉 요구)을 보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Tisak, 1986) 유아는 자발적 순응을 더 많이 나타낼 것이다. 한편 유아는 관습적 규칙이 도덕

적 규칙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Turiel, 1983)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습적 상황에서는 상황적 순응이나 무시, 거부 혹은 타협행동이 많이 나타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어린 아동들은 교사의 권위를 잘 따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자기가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Killen & Smetana, 1999; Weber, 1999), 유아들은 개인적 상황과 관습적 상황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없어(부성숙, 2007), 개인적, 관습적 상황에서 모두 무시, 거부 혹은 타협행동과 같은 불순응 행동이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순응 및 불순응 행동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다(하지영 · 박성연, 2005; Chen et al., 2003; Feldman & Klein, 2003). 순응 및 불순응 행동에서 나타나는 성차는 남아에게 독립성을 격려하고, 여아에게는 행동의 제한을 많이 두는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Power, 1985; Power & Parke, 1986).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순응적으로 나타나나, 이 또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사회화 신념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Park & Cheah, 2005), 여아에게는 보다 사회적 관습을 강조한다. 따라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도덕적 상황과 관습적 상황에서 순응행동을 보일 경향이 더 높은 반면, 개인적 상황에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불순응 행동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인지적 발달이나 이와 관련된 도덕성 발달 측면에서 볼때 순응 및 불순응 행동은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Kaler와 Kopp(1990)에 의하면, 유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의 요구나 지시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므로 어린아이의 순응행동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증가하지만 불순응 행동은 감

소한다. 또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발적 순응은 증가하고 상황적 순응은 감소하며(Kochanska & Aksan, 1995) 무시나 반항은 감소하는 대신 보다 고차원적인 거부나 타협은 증가한다(Schneider-Rosen & Wenz-Gross, 1990). 국내연구에서도 규칙에 대한 순응정도에서 5세아가 3세아보다 높았으며(박호선·한유미, 2001) 3세 이하보다 3세 이상 유아가 자발적 순응을 더 많이 보인다(홍미림, 2005)고 보고된바 있다. 그러나 처벌지향적 도덕성 단계인 4~7세(Kohlberg, 1976)에 속한 유아기는 일반적으로 발달적인 변화가 크기 때문에 보다 어린 유아기인 4, 5세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6, 7세 유아는 순응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아동의 성 및 연령에 따른 아동의 순응행동의 차이를 밝힌 연구들은 있었지만(박호선·한유미, 2001; 박성연 외, 2007; 신영아, 2007; 하지영·박성연, 2005), 순응행동과 불순응 행동의 유형을 나누어서 어머니의 어떤 양육행동이 어떤 유형의 순응 및 불순응 행동과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또한, 아동이 속한 사회적 맥락에 따른 어머니의 요구내용과 관련하여 순응, 불순응 정도를 파악한 연구(신영아, 2007; 이희선, 1995)는 있었지만, 또래집단 내에서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순응 및 불순응 행동의 각 유형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아동의 순응행동이나 불순응 행동은 개인 내적 특성이라기보다 대인관계적이고 상황-특수적인 특성이므로(Sternberg et al., 1991), 유아의 성 및 연령,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순응, 불순응 행동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순응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응행동을 자발적 순응

과 상황적 순응으로 나누고, 불순응 행동을 무시, 거부 및 협상, 반항행동으로 구분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린이 집에서 유아가 나타내는 순응 및 불순응 행동유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아의 순응 및 불순응 행동이 사회적 상황(도덕적 상황, 관습적 상황, 개인적 상황)이나 유아의 성 및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탐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순응(자발적, 상황적) 및 불순응 행동(무시, 거부 및 타협, 반항)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순응행동(자발적, 상황적)은 유아의 성, 연령 및 사회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불순응행동(무시, 거부 및 타협, 반항)은 유아의 성, 연령 및 사회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K구와 S구에 주거하는 유아 213명(남아 96명; 여아 117명)과 그 어머니들로 하였다. 유아의 연령은 5세(49~60개월) 121명, 6세(61~72개월)가 92명이었다. 한편 연구대상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9.0세,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2.9세였고 부모의 교육수준은 모두 과반수 이상이 대학교 졸업이상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공무원, 교사 등의 직업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43.2%),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에 근거해 볼 때 본 연구대상은 대체

로 중류층이라고 볼 수 있다.

## 2. 측정도구

### 1) 어머니의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박영애, 1995; 신영아, 2007; 임희수, 2001)를 참고로 어머니가 아동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형태의 통제방식과 관련이 깊다고 판단되는 과보호적, 온정·합리적, 강압적,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 맞는 문항을 선별하여 39개 문항의 양육행동 척도를 구성하였다. 한편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행동척도 39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부하량이 .40이하이거나 이중부하(double loading)된 6개의 문항(1, 4, 14, 15, 18, 32)이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4개 요인에 33문항이 포함되었다.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문항 예로는 “나는 아이가 늘 어린 아기처럼 생각이 된다”를 들 수 있으며, 온정·합리적 양육행동의 문항 예로는 “나는 아이가 실망했을 때 이해하고 위로해 준다”, 강압적 양육행동 문항은 “나는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나는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방해해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양육행동 척도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Cronbach's  $\alpha$ 로 산출한 결과, 과보호 행동은 .67, 온정·합리적 행동은 .88, 강압적 행동은 .80, 허용·방임적 행동은 .72로 나타났다.

### 2) 사회적 상황에서의 유아의 순응 및 불순응 행동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유아의 순응 및 불순응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도덕발달이론(Laupa & Turiel, 1986; Tisak, 1986; Yau & Smetana, 2003)을 근거로 유아들이 처하게 되는

사회적 상황을 도덕적 상황, 관습적 상황, 개인적 상황의 3범주로 정하였다. 척도문항 구성을 위해서는 유아학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관습적, 개인적 상황에 관한 부성숙(2007)의 그림척도내용을 참고하는 한편, 연구자가 3명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사와의 개별면접을 통해 도덕적 상황, 관습적 상황, 개인적 상황에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내용의 구체적인 예들을 수집하였다. 이후 본 연구자는 수집된 면접 자료를 토대로 각 상황에 가장 보편적인 내용으로 가상적 이야기를 기술한 총 20문항을 개발하였다 (예 : 도덕적 상황의 경우; A는 지나가다가 실수로 B가 벽돌블럭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탑을 무너뜨렸다. 화가 난 B는 A를 때린다. 교사는 B에게 “친구를 때리면 안돼” 라고 한다). 또한 가상 상황을 나타내는 총 20문항 각각에 대해 Kochanska와 Aksan(1995)의 정의를 토대로 자발적 순응, 상황적 순응, 무시, 거부/타협, 반항의 5개 반응행동을 기술한 1개 문항씩을 제작하여 총 10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상황적 순응의 예 : 대체로 순응하지만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계속적인 격려나 자극이 필요하다; 무시의 예; 교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한다). 이후 어린이집 교사와 아동학 전문가를 통해 개발된 각 문항에 대한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를 확인하였다. 본 척도는 교사보고용으로 문항별 반응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상황에 대해 각각의 순응, 불순응 행동유형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개발된 본 척도가 과연 도덕적 상황, 관습적 상황, 개인적 상황으로 구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발적 순응, 상황적 순응, 무시, 거부/타협 및 반항 각 반응행동에

대해 이에 포함된 20개 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나 5가지 반응행동 모두에서 개인적 상황에 관한 문항들은 대부분 요인부하량이 낮거나(.30 이하) 다른 요인에 이중으로 부하되어 제외하고 도덕적 상황과 관습적 상황에 관련된 부하량 .40 이상의 문항만을 선택하였다. 이후 도덕적 상황 및 관습적 상황에 속한 문항들 중, 순응 및 불순응 행동의 5개 유형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상황들을 선택함으로써 20개 상황 문항 중 최종적으로 총 11개 상황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총 55문항)가 완성되었다. 1요인인 도덕적 상황의 예로는 ‘친구들에게 양보하기’, 2요인인 관습적 상황의 예로는 ‘선생님께 높임말 사용하기’에 관한 내용을 들 수 있다. 1요인인 도덕적 상황(4문항)에서 산출된 Cronbach  $\alpha$ 값은 ‘자발적 순응’이 .89, ‘상황적 순응’은 .87, ‘무시’는 .91, ‘거부/타협’은 .93, ‘반항’은 .93이었으며, 2요인인 관습적 상황(7문항)에서 산출된 Cronbach  $\alpha$ 값은 ‘자발적 순응’이 .86, ‘상황적 순응’은 .85, ‘무시’는 .90, ‘거부/타협’은 .93, ‘반항’은 .95로 나타났다.

### 3. 조사절차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9곳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장선생님께 허락을 얻은 후, 5세와 6세 반 담임교사 20명에게 전달하였으며 교사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유아 10~15명의 순응 및 불순응 행동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양육행동척도는 교사를 통해 어머니들에게 전달되었다. 질문지 배부 후 2주 이내에 총 290부의 질문지 가운데 235부가 회수되었으나(회수율 약 81%), 회수된 질문지 중 일부자료가 미비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213부 만을 연구문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작된 측정도구에 대해서는 탐색적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1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순응 및 불순응 행동 간의 단순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사회적 상황별로 성 및 연령을 통제 한 부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와 3인 순응행동 및 불순응 행동에서 유아의 성 및 연령과 사회적 상황에(도덕적 상황, 관습적 상황)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황을 집단 내(within) 변인으로, 그리고 성과 연령을 집단 간(between) 변인으로 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한편, 연구에 협조한 교사 20명이 응답한 순응 및 불순응 행동 자료에 대해서는 교사마다 순응 불순응 행동에 대한 지각정도나 평가기준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표준점수(Z점수)로 환산한 후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도는  $p < .05$  이하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 III 연구결과

###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순응 및 불순응 행동 간의 관계

우선 도덕적 상황에서의 유아의 순응행동과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발적 순응행동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 한편( $r = -.18, p < .01$ ), 어머니

<표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도덕적 상황에서의 유아의 순응 및 불순응 행동 간의 부분 상관관계 (N = 213)

어머니의 양육행동	순응행동			불순응 행동			
	자발적 순응	상황적 순응	순종 전체	무시	거부 및 타협	반항	순종 전체
과보호	.05	.07	.07	.05	.07	.05	.07
온정·합리적	.11	.15*	.14*	.09	.02	.05	.05
강압적	-.18**	-.13	-.17*	-.16*	-.08	-.05	-.10
허용·방임적	-.10	-.06	-.09	-.07	-.03	-.08	-.07
<b>M</b>	-.03	.01	-.01	-.02	-.01	-.01	-.01
<b>SD</b>	3.46	3.38	6.20	3.53	3.63	3.65	10.08

\* $p < .05$ . \*\* $p < .01$ .

주 1. 양육행동 점수 : 1(전혀그렇지 않다) ~ 4점(매우그렇다).

주 2. 순응행동 점수 : Z 점수임.

의 온정·합리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상황적 순응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r = .15, p < .05$ ). 즉 어머니가 강압적일수록 도덕적 상황에서 유아의 자발적 순응은 낮게 나타났으며, 온정·합리적일수록 상황적인 순응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과보호 및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모두 유아의 순응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유아의 불순응 행동의 경우는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만이 무시와 부적인 상관( $r =$

$-.16, p < .05$ )을 보여 어머니가 강압적 태도를 보일수록 유아는 도덕적 상황에서 무시행동을 적게 보였다(표 1).

다음으로 관습적 상황에서의 유아의 순응 및 불순응 행동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발적 순응 행동 및 무시와 부적인 상관을 보여( $r = -.19, p < .01$ ;  $r = -.14, p < .05$ ), 어머니가 강압적일수록 관습적 상황에서 유아의 자발적 순응과 무시행동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과보호,

<표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습적 상황에서의 유아의 순응 및 불순응 행동 간의 부분 상관관계 (N = 213)

어머니의 양육행동	순응행동			불순응 행동			
	자발적 순응	상황적 순응	순종 전체	무시	거부 및 타협	반항	순종 전체
과보호	-.05	.00	-.03	-.04	.01	-.05	-.03
온정·합리적	.07	.04	.06	.08	.03	.03	.05
강압적	-.19**	-.08	-.15*	-.14*	-.07	-.06	-.09
허용·방임적	-.11	-.07	-.10	-.10	-.03	-.02	-.05
<b>M</b>	-.11	-.11	-.06	-.05	-.02	-.03	-.03
<b>SD</b>	5.19	5.10	9.30	5.51	5.88	6.08	16.27

\* $p < .05$ . \*\* $p < .01$ .

주 1. 양육행동 점수 : 1(전혀그렇지 않다) ~ 4점(매우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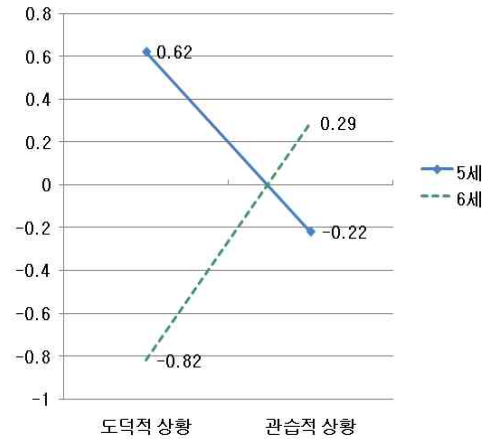
주 2. 순응행동 점수 : Z 점수임.

온정·합리적 및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관습적 상황에서의 유아의 순응 및 불순응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표 2).

## 2. 순응행동에서의 유아의 성, 연령 및 사회적 상황에 따른 차이

유아의 순응행동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결과, 자발적 순응의 경우 성, 연령 및 상황의 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과 상황의 상호작용 효과 및 성, 연령 및 상황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표 3).

우선 연령과 상황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보듯이 도덕적 상황에서는 5세 아동( $M = .62, SD = 3.65$ )이 6세 아동( $M = -.82, SD = 3.03$ )보다 더 자발적 순응이 높았고, 관습적 상황에서는 6세 아동( $M = .29, SD = 4.93$ )이 5세 아동( $M = -.22, SD = 5.40$ )보다 더 자발적 순응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성, 연령 및 상황의 상



<그림 1> 자발적 순응에서 연령 및 상황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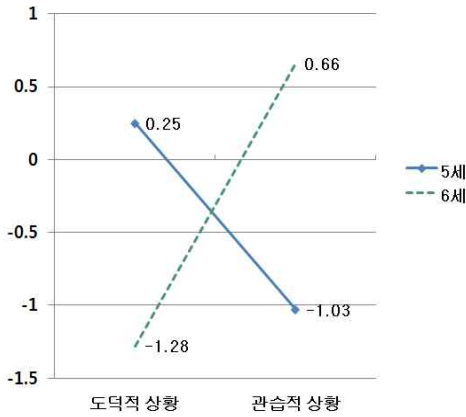
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남아와 여아 집단 각각을 대상으로 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도덕적 상황에서는 5세 남아( $M = .25, SD = 3.70$ )가 6세 남아( $M = -1.28, SD = 3.10$ )보다 자발적 순응이 높게 나타난 반면, 관습적 상황에서는 6세 아동( $M = .25, SD = 3.70$ )이 5세 아동( $M = -.25, SD = 3.70$ )보다 자발적 순응이 더 높았다

<표 3> 유아의 성, 연령 및 사회적 상황에 따른 순응행동에 대한 분산분석 ( $N = 2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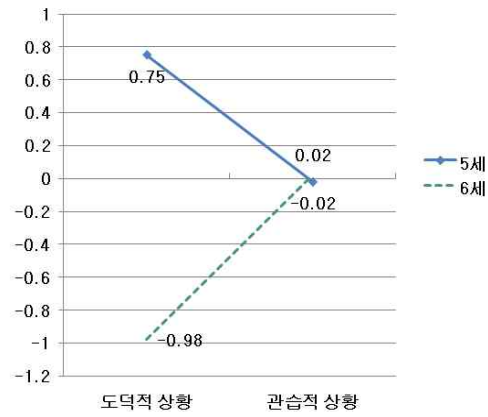
		변산원	계급합	df	평균계급	F
순응 행동	자발적 순응	성(A)	36.58	1	36.58	1.20
		연령(B)	19.24	1	19.24	.63
		상황(c)	2.85	1	2.85	.35
		A×C	2.78	1	2.78	.35
		B×C	112.05	1	112.05	13.90***
		A×B×C	33.58	1	33.58	4.17
		오차	1684.50	209	8.06	
	상황적 순응	성(A)	60.69	1	60.69	2.12
연령(B)		60.75	1	60.75	2.12	
상황(c)		2.78	1	2.78	.36	
A×C		10.40	1	10.40	1.35	
B×C		90.05	1	90.05	11.72**	
A×B×C		16.44	1	16.44	2.14	
오차		1605.87	209	7.68		

\* $p < .05$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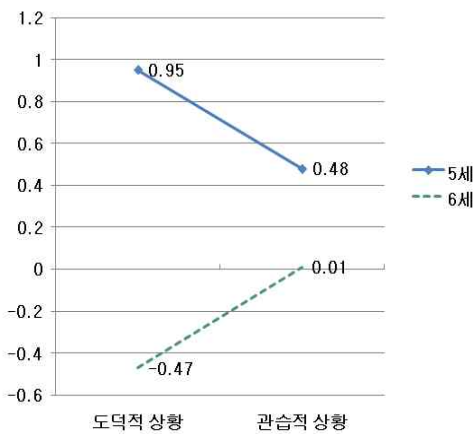




<그림 2> 남아의 자발적 순응에서 연령 및 상황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그림 4> 상황적 순응에서 연령 및 상황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그림 3> 여아의 자발적 순응에서 연령 및 상황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그림 2). 그러나 여아의 경우는 남아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상황에서는 5세( $M = .95$ ,  $SD = 3.61$ )가 6세( $M = -.47$ ,  $SD = 2.95$ )보다 자발적 순응이 높았으나, 관습적인 상황에서는 5세( $M = .48$ ,  $SD = 5.38$ )와 6세( $M = .01$ ,  $SD = 4.58$ )간에 자발적 순응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그림 3).

한편, 상황적 순응의 경우는 연령과 상황의 상호작용효과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4에서 보듯이 도덕적 상황에서는 5세 아동이( $M = .75$ ,  $SD = 3.61$ ) 6세 아동( $M = -.98$ ,

$SD = 2.79$ ) 보다 상황적 순응을 더 많이 보였으나, 관습적 상황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6세  $M = .02$ ,  $SD = 4.03$ ; 5세  $M = -.02$ ,  $SD = 5.80$ ) (표 3, 그림 4 참조).

### 3. 불순응 행동에서의 유아의 성, 연령 및 사회적 상황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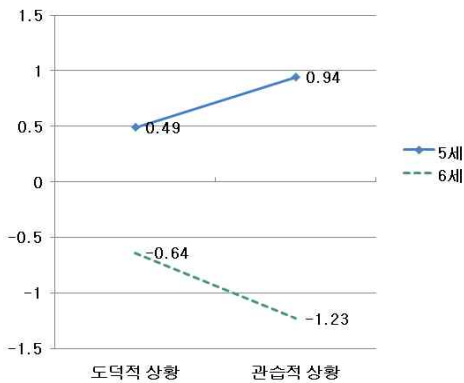
유아의 불순응 행동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결과, 무시, 거부 및 타협, 반항 모두에서 연령의 주효과가 나타나, 5세 아동이 6세 아동보다 모든 유형의 불순응 행동이 높았다. 또한 불순응 행동 중 거부 및 타협과 반항에서 연령과 상황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표 4).

이에 거부 및 타협에서 나타난 연령과 상황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세 아동은 도덕적 상황( $M = .49$ ,  $SD = 3.87$ )보다 관습적 상황( $M = .94$ ,  $SD = 5.60$ )에서 거부 및 타협이 더 높았으나, 6세 아동은 관습적 상황( $M = -1.23$ ,  $SD = 6.04$ )보다 도덕적 상황( $M = -.64$ ,  $SD = 3.20$ )에서 거부 및 타협이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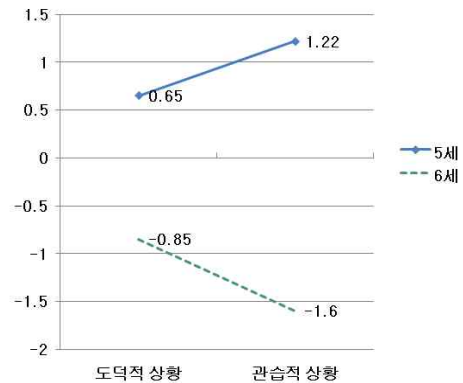
<표 4> 유아의 성, 연령 및 사회적 상황에 따른 불순응 행동에 대한 분산분석 ( $N = 213$ )

		변산원	제공합	$df$	평균제공	$F$
불순응 행동	무시	성(A)	13.92	1	13.92	.39
		연령(B)	176.68	1	176.68	4.89*
		상황(C)	.01	1	.01	.00
		A×C	3.38	1	3.38	.53
		B×C	4.93	1	4.93	.78
		A×B×C	4.41	1	4.41	.69
		오차	1327.61	209	6.35	
		거부 및 타협	성(A)	.12	1	.12
	연령(B)		286.18	1	286.18	7.09**
	상황(C)		.06	1	.06	.01
	A×C		21.25	1	21.25	3.28
	B×C		26.50	1	26.50	4.09*
	A×B×C		.18	1	.18	.03
	오차		1354.45	209	6.48	
	반항		성(A)	2.35	1	2.35
		연령(B)	487.97	1	487.97	11.79**
		상황(C)	.29	1	.29	.04
		A×C	11.69	1	11.69	1.67
		B×C	42.29	1	42.29	6.03*
		A×B×C	.87	1	.87	.12
		오차	1466.29	209	7.02	

\* $p < .05$ . \*\* $p < .01$ . \*\*\* $p < .001$ .



<그림 5> 거부 및 타협에서 연령 및 상황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그림 6> 반항에서 연령 및 상황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한편 반항행동의 경우 역시 거부 및 타협에서와 마찬가지로 5세 아동은 도덕적 상황( $M = .65$ ,  $SD = 3.54$ )보다 관습적 상황( $M = 1.22$ ,  $SD =$

5.30)에서 반항이 더 높았으며, 6세 아동은 관습적 상황( $M = -1.60$ ,  $SD = 6.68$ )보다 도덕적 상황( $M = -.85$ ,  $SD = 3.65$ )에서 반항이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6).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5~6세 남녀 유아 21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내는 순응 및 불순응 행동 각 유형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순응 및 불순응 행동의 각 유형이 유아의 성, 연령 및 사회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순응 및 불순응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강압적인 양육행동은 도덕적 상황과 관습적 상황 모두에서 유아의 자발적 순응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어머니가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유아의 자발적 순응행동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가 신체적 처벌이나 위협 등 부정적인 통제를 할 경우, 자발적 순응행동이 덜 나타난다는 연구들(박호선 · 한유미, 2001; Chen et al., 2003; Kochanska & Aksan, 1995; Kuczynski & Kochanska, 1995)을 지지한다. 또한, 어머니의 강압적인 양육행동은 도덕적, 관습적 상황 모두에서 유아의 불순응 행동 중 무시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어머니가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무시하는 불순응 행동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가 불명확한 명령이나 직접적인 명령, 강요를 할 때 유아의 무시하는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불일치한다(Kuczynski et al., 1987). 이러한 불일치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선 Kuczynski 등의 연구는 관찰연구로 양육행동을 제공한 자(즉 어머니)와 순응행동을

요구하는 자(즉 어머니)가 동일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어머니이고, 순응행동을 요구하는 사람은 보육교사로 그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연구대상의 연령 차이로 인한 결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인 5~6세 유아는 Kohlberg의 도덕이론(1976)에 의하면 벌과 복종에 초점을 맞추는 전 인습적 단계이므로, 어머니가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경우 유아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어머니에게 순응하게 되므로 무시하는 행동이 적게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온정 · 합리적 양육행동은 도덕적 상황에서는 유아의 상황적 순응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관습적 상황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도덕적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온정 · 합리적 양육행동을 나타낼수록 유아의 상황적 순응행동이 높게 나타난 반면 관습적인 상황에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비일관성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대체로 자녀에게 온화하며 민감한 양육태도를 보이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 부모의 자녀는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경향이 높다는 선행연구와는 다소 다르다(Kochanska, Aksan, Knaack, & Rhines, 2004; Kochanska, Aksan, & Koeing, 1995). 이는 걸음마기 유아를 대상으로 한 Kochanska 등과 달리 본연구는 5~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데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걸음마기 유아와는 달리 인지적 발달이 보다 향상된 5~6세 유아는 상황에 따라 순응/불순응 행동에 융통성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되는 도덕적 상황과 달리 관습적 상황에서는 선택가능성이 있다고 보아(Turiel, 1983; Yau & Smetana, 2003)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반

드시 지켜야 하는 도덕적 행동기준에 대해서 온정·합리적 어머니는 왜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따뜻하게 격려하는 행동으로 인해 유아의 그나마 상황적인 순종행동이라도 보이는 반면, 비교적 그 요구가 그리 엄격하지 않은 관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육행동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도덕적, 관습적 두 상황 모두에서 자발적인 순종행동과 부적 관련성이 나타난 강압적 행동에 비해 어머니의 온정·합리적인 양육행동은 순종행동과의 관련성이 약하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상황에 따른 유아의 순응/불순응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에 관한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같은 양육행동이라도 아동의 순응/불순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상아동의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둘째, 유아의 성, 연령 및 사회적 상황(도덕적 상황, 관습적 상황)에 따라 순응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연령과 상황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도덕적 상황에서는 5세가 6세보다 더 자발적 순응행동이 높았고, 관습적 상황에서는 6세가 5세보다 더 자발적 순응행동이 높았다. 이는 앞서 이론적 고찰과 논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5세 유아의 경우 보다 엄격한 도덕적 상황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반면 나이가 좀 더 든 유아는 이해력과 경험이 점차 증가하면서 관습적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유아의 자발적 순응에서 연령과 상황 간의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여아는 도덕적 상황과 관습적 상황 모두에서 5세가 6세보다 더 자발적 순응행동이 높은 경향을 보였던 반면에 남아의 경우는 도덕적 상황에서는 5세가 6세보다 더 자발적 순

응행동이 높았고, 관습적 상황에서는 6세가 5세보다 더 자발적 순응행동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여아가 전반적으로 남아보다 자발적 순응행동이 우세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Chen et al., 2003; Kochanska & Aksan, 1995). 또한 지면관계상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5세 6세 모두 여아는 남아보다 자발적순종과 상황적 순종 모두 높았던 본연구의 기초 자료로도 뒷받침된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 도덕적, 관습적 상황 모두에서 5세가 6세보다 자발적 순응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남녀 모두 도덕적 상황에서만 5세 유아의 자발적 순응이 높게 나타났다는 Kochanska 등(1998)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르다. 이러한 불일치는 유아를 둔 우리나라 어머니가 여아에게 사회관습적인 행동을 더 강조한다는 Park과 Cheah(2005)의 사회화 신념 연구에 비추어볼 때 여아는 도덕적행동 뿐 아니라 사회관습적 행동에 대해서도 같은 비중을 두어 내면화된 순응행동을 습득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상황적 순응의 경우는 연령과 상황의 상호작용만 나타나, 도덕적 상황에 대해서 5세가 6세보다 상황적 순응행동이 더 높았으나, 관습적 상황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외부의 통제가 있을 때만 순응하는 형태인 상황적 순응은 연령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된다(Kochanska & Aksan, 1995; Kochanska et al., 1995; 김미정, 2001). 따라서 특히 도덕적 상황에 대해서는 연령이 어린 5세 아동이 성인의 통제가 있는 경우에만 순응하는 상황적 순응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유아의 성, 연령 및 사회적 상황(도덕적 상황, 관습적 상황)에 따라 불순응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불순응 행동의 모든 유형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여, 불순응 행동의 모든 유형은 5세가 6세보다 높았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순응행동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박호선·한유미, 2001; 홍미림, 2005; Kopp, 1982)과 유사한 결과로, 연령이 낮은 유아들이 높은 유아들보다 불순응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인지발달이나 사회적 경험부족으로 인해 상황적 요구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불순응 행동 중 거부 및 타협과 반항은 연령과 상황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보여, 6세에 비해 5세 유아는 도덕적 상황보다 관습적 상황에서 거부 및 타협, 반항이 더 높았다. 연령이 어릴수록 관습적 상황에서 거부 및 타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연령이 낮을수록 사고력 발달의 특성상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명확한 도덕적인 규칙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회 관습적으로 부여된 권위나 관습에 대한 이해가 힘들고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유아의 순응 및 불순응 행동은 강압적인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편, 유아의 순응이나 불순응 행동유형은 연령 및 성 그리고 순응이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순응행동을 보이는 한편, 여아 남아 모두 5세에서 6세에 이르는 동안 모든 유형의 불순응 행동은 감소하였다. 또한 6세아는 관습적 상황에서 자발적인 순응을 더 많이 보이는 반면, 5세아는 도덕적인 상황에서 자발적인 순응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도덕적 사고의 발달적 변화양상과 함께 순응 및 불순응 행동

이 상황특수적인 특성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이기는 하나 국내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유아의 순응 및 불순응 행동을 각 유형 별로 나누어, 양육행동과의 관련성 및 도덕적 관습적 상황에 따른 순응 불순응 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교사가 평가한 보육시설에서의 유아의 순응행동에 기초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나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순응, 불순응 행동 간의 관계를 확대 해석하는 데는 주의를 요한다. 또한 거부와 타협은 서로 다른 불순응 행동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대상에서는 거부나 타협 행동이 드물게 나타났으며, 불순응 관련 선행연구(김미정, 2001; Kochanska & Aksan, 1995)에서도 합쳐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 따로 분석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가정에서의 순응행동과 보육시설에서의 순응, 불순응 행동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도 이루어진다면 아동의 순응행동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난실(2004). 만 2세반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정(2001). 어머니의 양육가치, 양육목표, 양육신념 및 조정행동과 유아의 순응행동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미(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청구논문.
- 박성연 · Rubin, K · 정옥분 · 윤종희 · 도현심(2007). 아동의 성, 기질, 행동억 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과 순응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4), 1-17.
- 박호선 · 한유미(2001). 가정 및 보육기관에서의 규칙 에 대한 유아의 순응성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 연구**, 5(2), 113-127.
- 부성숙(2007). 유아의 도덕적, 사회-관습적, 개인적 상 황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상호작용. 이화여자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성희용(2004). 문제해결 상호작용 상황에서 어머니 행 동특성과 애착안정성이 유아의 행동특성에 미치 는 영향- 어머니 행동특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영아(2007).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행동에 관련된 변 인들 -아동의 성, 연령,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 도와 요구내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희선(1995).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과 유치원 적응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 학 제2집**, 111-124.
- 임희수(2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 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하지영 · 박성연(2005).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 동 및 보육경험이 아동 의 불순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2), 55-74.
- 한태숙 · 황혜정(2010).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정서 성, 부부갈등 및 양육관련 변인이 유아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학회**, 30(5), 99- 119.
- 홍미림(2005). 어머니-유아 문제해결 상호작용 : 어머 니 행동특성, 애착 안정 성, 유아의 기질 및 발달 연령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Chen, X., Rubin, K. H., Liu, M., Chen, H., Wang, L., Li, D., Gao, X., Cen, G., Gu, H., & Li, B. (2003). Compliance in Chinese and Canadian toddlers : A cross cultur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 428-436.
- Feldman, R., & Klein, P. S. (2003). Toddlers' self-regulated compliance to mothers, caregivers, & fathers :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social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9, 680-692.
- Houser, K., Schuetze, P., & Eiden, R. (2003). The asso ciation between maternal and child characteristics and child compliance. *Poster presentation at a meeting for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ampa, Florida.
- Kaler, S. R., & Kopp, C. B. (1990). Compliance and comprehension in very young toddlers. *Child Development*, 61, 1997-2003.
- Killen, M., & Smetana, J. G. (1999). Social interactions in preschool classrooms and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personal. *Child Development*, 70(2), 486-501.
- Laupa, M., & Turiel, E. (1986). Children's conceptions of adult and peer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7, 405-412.
- Kochanska, G., & Aksan, N. (1995). Mother-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s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236-254.
- Kochanska, G., & Aksan, N., & Koeing, A. L. (1995).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oots of preschoolers' conscience : Committed compliance and emerging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1752-1769.
- Kochanska, G., Tjebkes, T. L., & Forman, D. R. (1998). Children's emerging regulation of conduct : Restraint, compliance, and internalization from infancy to the second year. *Child Development*, 69, 1378-1389.
- Kochanska, G. (2002). Mutually Responsive Orientation between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 A context for the Early Development of *Conscie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 191-195.

- Kochanska, G. Aksan & N. Forman, D. R. (2004). Toddlers' Responsive Imitation Predicts Preschool-Age Conscience. *Psychological Science, 15*, 699-704.
- Kochanska, G. Aksan, N. Knaack & A. Rhines, H. (2004). Maternal Parenting and Children's Conscience : Early Security as Moderator. *Child Development, 75*, 1229-1242.
- Kohlberg, L. A. (1976). Moral stages and moralization : The cognitive development approach. In T. Li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 Theory, research, and social issues*.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Kuczynski, L., & Kochanska, G. (1995). Function and Content of Maternal Demands :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Early Demands for Competent Action. *Child Development, 66*, 616-628.
- Kuczynski, L., Kochanska, G., Radke-Yarrow, M., & Gimius-Brown, O. (1987). A developmental interpretation of young children's noncompli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799-806.
- Nucci, L. (2001). *Education in the moral domai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 S. Y., & Cheah, C. (2005). Korean mothers' proactive socialisation beliefs regarding preschoolers' social skill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1), 24-34.
- Power, T. G. (1985). Mother- and father-infant play : A development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 1514-1524.
- Power, T. G., & Parke, R. D. (1986). Patterns of early socialization : Mother-and father-infant interaction in the hom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9*, 331-341.
- Schneider-Rosen, K., & Wenz-Gross, M. (1990). Patterns of compliance from eighteen to thirty months of age. *Child Development, 61*, 104-112.
- Sternberg, K. J., Lamb, M. E., Hwang, C. P., Broberg, A., Ketterlinus, R. D., & Bookstein, F. L. (1991). Does out-of-home care affect compliance in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4*, 45-65.
- Tisak, M. S. (1986). Children'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7*, 166-176.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ber, E. K. (1999). Children's personal prerogative in home and school contexts.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0*(4), 499-515.
- Yau, J., & Smetana, J. G. (2003). Conceptions of moral, conventional, and personal event among chinese preschoolers in hong kong. *Child Development, 74*(3), 647-658.

2011년 2월 13일 투고, 2011년 5월 29일 수정  
2011년 6월 9일 채택